

투데이 칼럼

세계잼버리 새만금 下 ‘부안의 새만금을 세계적 관광지로’

새만금의 광활한 갯벌경치가 세계잼버리장의 적합지로서 인상적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부안과 군산을 잇는 33km의 방조제 도로 넘어 바다는 해양수상 활동장으로 안성맞춤이다.

변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격포항과 잼버리장을 연결하는 탐사코스는 외국 참가자들에게 훌륭한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참가할 불자들에게 템플스테이 장소로 내소사를 활용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고군산열도인 선유도까지 설치중인 교량을 잼버리장에 완공해 아름다운 고군산 열도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린 한국관광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잼버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잼버리장 주변에 50여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가 광활하여 청소년들이 이동에 편의를 제공할 셔틀버스는 전기차만 운행토록 친환경 잼버리가 돼야 한다.

3만여명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야영대회야말로 자연의 대향연이며 인종간 친목과 교류의 폐스타일인 것이다.

국내 전역에서 많은 청소년과 스텝(운영요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전세버스, 캠프장비, 먹거리, 방문객 등 도로사정과 잼버리장 내 운행차량의 안전과 신속한 소통계획도 철저히 수립해야 할 덕목으로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올해에는 세계잼버리위원회와 사무처를 구성해 5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씩 차질없이 실천할



최 병 수 한국스카우트연맹훈련교수

프로젝트를 세워 내년부터 실행해야 세계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의 특징은 대화장 및 야영장 조성에 보상 문제와 같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측량만 완료되면 시설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토작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며 나무를 심고 환경을 개선하기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획단계부터 심각히 고려할 사항은 잼버리가 끝난 후 시설물의 영속적인 활용문제를 청소년 인성교육에 활용한다면 새만금 지역은 청소년들만의 요람이 될 환경적 조건을 충분히 갖춘 천혜의 장소로서 최적인 곳이 될 것이다.

세계잼버리는 스카우트청소년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7박8일간 운영되는데 참가자들은 광활한 캠프장에 도착하면 텐트를 설치하고 잼버리 생활에 들어간다.

세계 150개 회원국에서 선발된 3만여 단원과 지도자들은 모두 텐트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만금 벌판은 천연색 구조물로 장관을 이룰 것이다.

참가자들은 본부에서 계획된 프로

그램에 참가하고 이수할 때마다 스텝을 받아 규정된 과점수를 초과한 참가자에게 메달을 수여함으로써 참여하며 즐기면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도장인 것이다.

스카우트정신은 인종과 종교, 그리고 정치를 초월한 세계적 조직으로서 그 국가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고유한 자기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열린 광장으로 활용하며 유스포럼을 통한 청소년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른 민족이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듯, 서양도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역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계잼버리를 통해 자기문화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전개하며 민간외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하는데 동아원에서는 우리나라, 일본(2회 개최), 필리핀만이 개최한 경향이 있을 정도다.

지난 8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스카우트 세계총회장에서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 개최가 확정

됐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만큼 국민적 관심은 작지만 참가자 수로 본다면 최대 규모의 행사인엔 틀림없다.

또 미래 자원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아리노 최상의 찬스를 잡기 위해 2년전부터 전북도와 부안군에서 새만금에 잼버리유치계획을 세우고 회원국을 상대로 특표작업에 돌입했고, 한국스카우트연맹, 정부관계부처, 국회스카우트 동우회와 긴밀한 협조로 만들어낸 작품이 세계잼버리 유치를 확정시킨 것이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현재 새만금은 기본적 인프라 구축도 안된 상태이므로 기반시설을 착수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하겠다.

잼버리장 기반시설 설계에 아영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잼버리장에 전국 최대의 청소년 시설을 조성해 호연지기를 즐기며 개척과 모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하고 모범적인 전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왜냐하면 현재도 청소년수련원 몇군데 있지만 행정편의주의 설계 및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활동 무대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여 평범의 청소년센터가 출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낙후된 서해안 지역발전을 앞당겨지기를 소망한다.

사설

3대현안 설립법 전북도의 능력에 달렸다

3대 현안 설립법이 국회에서 터덕거리는 모양인데 전북도가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나냐면 지역 발전 현안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해를 거듭해 지연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공감하기 보다는 냉정한 탓이 크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전북도가 힘내야 한다. 뭔가 잘 안 풀린다는 식으로 매번 같은 말만 되뇌어서는 안 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도내에는 유명무실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말로만 현안사업이지 정해진 사업들이 아닐 수 없다. 도민의 바람은 탄소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 탄소친환경 설립법이 기본 소식을 들려주기를 바라지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까닭에 표류하고 있는 형국이다. 역시나 국민연금 대학원 설립법도 그렇다. 오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경우, 새만금공사 설립법이 여야간 별 다른 이견이 없다지만 속 시원한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

다. 전북도가 힘내지 않는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3대 현안인 경제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익산의 식물플러스터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북도의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폭폭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못 마땅해 할 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지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사업들이 여전히 거북이 움직이니가 말이다. 그런 까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한참 낙후돼 있다.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전북도는 현안사업의 합한 추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전북도는 3대 현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전북도는 현재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자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는 더욱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

지역 경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다. 이런 매일수백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겠다. 다들 영업 실적이 저조한 중에 영세업체들은 도미노가 무너지는 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틀리니 한숨 소리뿐이니 답답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견고해지면 뭔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게 아직은 성급한 기대였던 모양이다.

지난날 영세상인들이 뚝뚝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어찌 됐는지 그 결과가 긍정적이다. 취직을 못한 젊은이들과 퇴직한 기성세대들이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들면서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이다. 그러므로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꾸준해야한다. 한 때 시세를 타고 끝 날 일이 아니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현실을 보면 바뀔때는 다르게 영세 상인들이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 열 명에 여덟 명 꼴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봤던 게 다시 생각난다. 불경기가 여전한 거라고 전망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전북 지역의 경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경기의 양상을 보면 앞으로는 별 수 없을 거라니 문제는 문제이다. 다들 수입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역력하다. 정부의 각료들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에 비례조적으로 나오는 야당과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 지금이다.

도내 자영업자들 중에는 체인점 형태의 '흙수저'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에게 '갑질'을 하는 '뽕수저'들이 문제이다. 저번에 불거진 몇몇 사건들만 보아도 그것은 확실하다. 그 가진 자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덜 된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비리와 황포가 드러나자 사과하면서 성함과 자숙을 말했지만 그것은 입에 빌린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호할 역할도 해주어야 한다는 당부이다.

독자제언

아름다운 인권보호, 우리 모두 함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본문)’

교과과정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해 보았을 내용이다.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주어진 당연하고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이고 권리라 하겠다.

특히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겐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잠시도 잊어선

아니 될 중요한 요즘이다. 경찰기관 역시 주민의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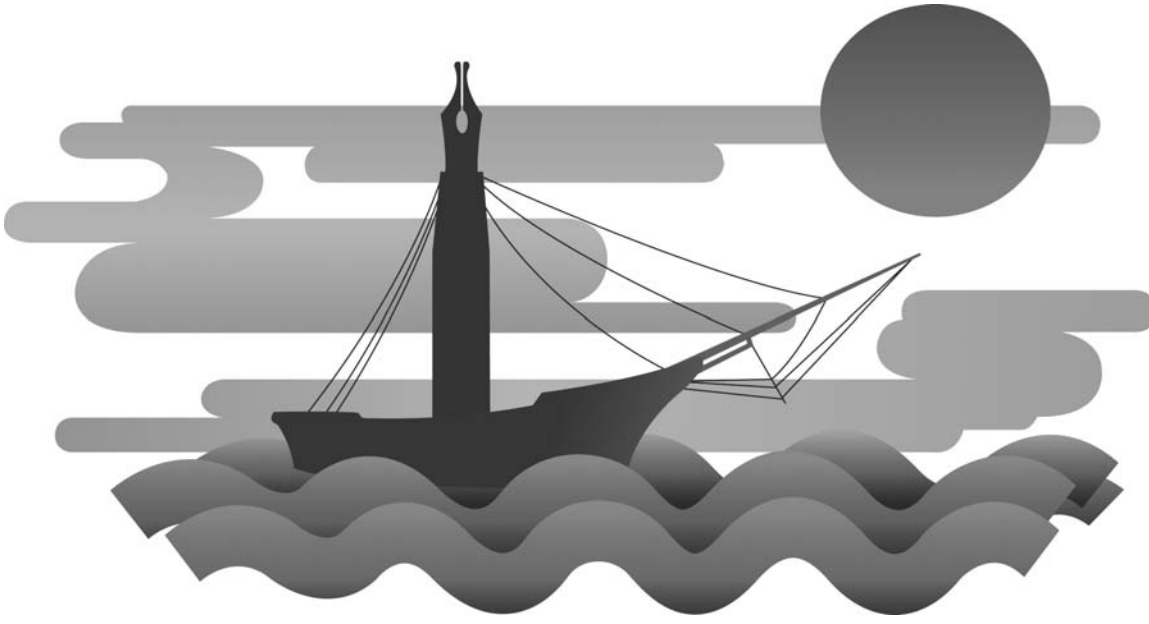
경찰청 주관으로 일반 주민도 참가하는 인권영화제가 개최되고 전담 부서를 통한 내외부 고객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등 주민의 마음높이에 맞게 실천 중이다.

고창경찰도 한 지역의 치안업무에 담당하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권 보호와 확립 유지를 위해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

평생 있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 우리 가라과 함께하는 인권 감수성 토론회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변호사를 전 한 위원으로 위촉 절차 보장을 확립하고 인권보호관 지정 운영,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외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경제적, 심리적 지원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고 (17년도 13건 지원),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나눔의 시간, 다문화 가정 지원, 지역 행사장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 및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신중한 말 한마디는 기본,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존중과 따뜻한 나눔과 사랑의 분위기가 이어질 때 범으로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인권을 자리 잡을 것이다.

주인 체감인원도 내 종합 2위와 내부고객 직무만족도 종합 1위라는 결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이 지역 주민과 경찰공무원들의 순수한 열정적 마음이 전해진 결과인 것처럼 보여 주기식이 아닌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권이 자리 잡는 고창군으로 거듭 나리라 확신한다. 송대석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